

● 기관장 주재,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새로운 3개년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워크숍이 지난 26일 우리 연구원 은하수홀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박석재 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설명하고, 대화 및 소통의 장을 통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를 모았던 이번 워크숍은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설명'과 '경영목표(안) 및 2008년 성과목표 설명', 그리고 '대화 및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이번 경영목표(안)은 3년 전에 수립한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부각되었고,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천문연구원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또한 박석재 원장은 '천문학은 과학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과학과 교육의 시너지효과 창출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장의 경영목표 수립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향후 경영목표 실행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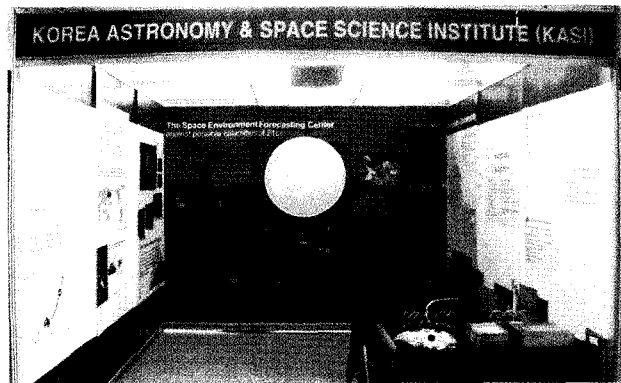
● 동아시아 VLBI 관측망(EAVN)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우리 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사업팀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VLBI 전파망원경들을 하나의 관측망으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VLBI 관측망(EAVN, East Asia VLBI Network)'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VLBI 관측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를 서울에 유

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이미 올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해 천문대에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VLBI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의 건설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고 활발한 협력방안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3월에 개최될 제2차 워크숍을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1차 워크숍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연구원이 진행해 오던 한-일-간 VLBI 과학기술 협력회의에 중국이 올해 처음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VLBI 연구개발 성과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되었으며,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VLBI 관측망 구축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아시아 VLBI 관측망은 유럽의 EVN(European VLBI Network)과 미국의 VLBA(Very Long Baseline Array)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되는 대륙간 국제 VLBI 관측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VLBI 관측망을 각각 운영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VLBI 유럽공동연구소(JIVE, Joint Institute for VLBI in Europe)'와 '미국립전파천문대(NRAO, National Radio Astronomy Observatory)'에 이어, 우리나라의 서울에 자리 잡게 될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도 대륙간 VLBI 국제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OGS 참가 및 태양우주환경 전시 홍보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16~20일에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 Asia-Oceania Geoscience Society)에 많은 연구진이 참석하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주과학연구부의 태양우주환경연구그룹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환경 분야 연구현황을 소개하는 홍보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외국 참가자들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IHY(International Heliophysical Year) 워크숍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연구원의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전시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태양의 3차원 영상은 태양 표면의 역동적인 활동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어 외국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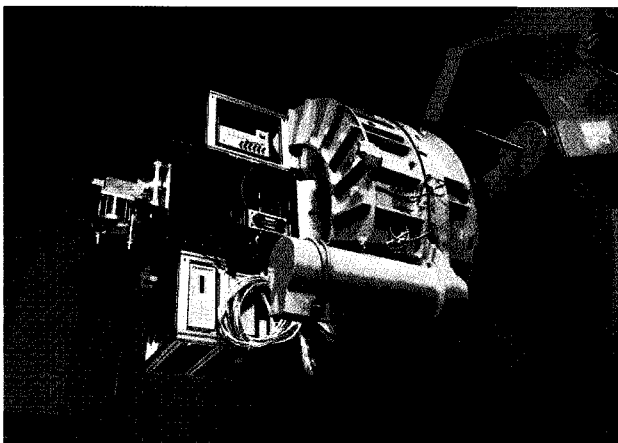
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학회에 방문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난 23~24일에 우리 연구원의 방문하였다. 태양 및 근지구 우주물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우주항공국 고다드우주비행센터(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의 Natchimuthuk Gopalswamy 박사와 일본의 Ryuho Kataoka 박사, Yoshizumi Miyoshi 박사, P. K. Manoharan 박사가 방문하여 꼴로키움을 갖는 등 우주과학 분야의 활발한 교류도 가졌다.

● 공공부문 IPv6전환확산 사업 참여

우리 연구원의 전산정보팀은 공공부문 IPv6전환확산 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24일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IPv6전환확산 사업은 대덕특구 내 인터넷 주소를 IPv6로 전환하여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Pv6란 인터넷 주소(IP)를 16진수와 콜론(:)으로 구분하여 128bit 표기(340×1036개)를 하는 것으로, 210.254.254.254와 같이 기존의 10진수와 점(.)으로 구분한 IPv4(약 43억 개)보다 훨씬 많은 인터넷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공공부문 IPv6전환확산사업은 IPv6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고, 인터넷의 주소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덕특구 내 6개 출연연구기관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담기관에서는 IPv6 전환장비 및 기술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말까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근적외선카메라(KASINICS) 베타 관측 실시

우리 연구원은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용 근적외선카메라인 KASINICS를 2008년 하반기부터 외부관측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베타 관측을 실시한다. KASINICS는 지난 2007년 1월에 개발하여 그동안 시험관측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였고, 최근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행하는 KASINICS 베타 공개는 최종공개 바로 전단계로서, 외부관측자의 관측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 보완하여 고객만족(CS)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2008년도 하반기 보현산천문대 관측제안서에 KASINICS를 이용한 관측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적외선 천문우주관측은 가시광 영역에서 볼 수 없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장 영역의 연구 분야로서, 성운 속에 가려진 새로운 별 탄생 영역 및 항성 진화 등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보현산 1.8m 망원경은 1995년부터 광학관측, 2004년부터 분광관측과 더불어 이번에 적외선관측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지상망원경의 관측할 수 있는 모든 파장대역을 완벽하게 되었다. 보현산천문대 관측제안서의 접수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 영양반딧불이 별축제 개최



우리 연구원은 영양군과 함께 '영양 반딧불이 별축제'를 지난 28~29일 양일간 영양군 수비면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인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별축제는 영양군이 기존에 진행하던 '영양반딧불이 생태체험축제'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연구원은 천문영상 상영, 태양계 행성에서의 몸무게 측정 등의 천문체험 코너, 천체 관측 등을 선보였다. 우리 연구원은 지방 별축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최한 영양을 비롯하여 대구와 곡성에서도 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실시

국가정보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보보안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 실사를 지난 23일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실사는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정보보안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 사이버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전문지식 및 사이버 안전업무 수행역량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총 8개 분야 167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